



## 괴짜라고들 하지만 재기발랄 하답니다

세계 클래식 음악계에서 괴짜를 뽑는다면, 프랑스의 피아니스트 루카 드바르그(25)가 단연 손꼽힌다. 아무렇지도 않게 험근 머리와 얼굴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검정 안경을 낀 그는 실현실에 박혀 있는 연구원과 책에 뒤덮인 문화도를 반씩 섞어놓은 인상이다. 평창 겨울음악제(25~28일) 공연을 위해 첫 내한한 드바르그는 23일 서울 서초동 대한빌딩 야마하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스스로 괴짜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말하는 분에게 들어야 할 것 같다. 내가 보기에 마음에 드는 것을 해왔을 뿐"이라며 웃었다. 드바르그는 지난해 '세계 3대 콩쿠르' 중 하나인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 피아노 부문에서 4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1위에 오른 드미트리 마슬레프(28)보다 더 화제가 됐다. 특히 콩쿠르 2라운드에서 연주한 라벨의 '밤의 가스파르'의 연주에 대해 "리히터에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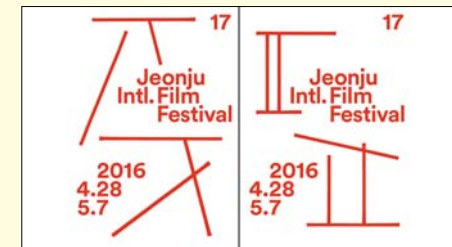
프랑스 피아니스트 루카 드바르그, 강원도 평창 겨울음악제 참가

할 자신감"이라는 평이 나오기도 했다. 재기발랄한 재능과 자유로운 예술적 표현으로 모스크바 음악평론가협회는 그에게 평론가상을 수여했다. 그런데 11세가 되기 전까지 피아노를 만져본 적도 없다. 어릴 때 부모가 이혼, 피아노도 없었던 조부모와 함께 살았다.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2악장을 듣고 피아노의 매력에 빠지게 된 후 학으로 피아노를 배웠다. 17세에는 피아노를 그만두고 록밴드에서 베이스 기타를 쳤다. 문화공부를 했으며 수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도 했다. 20세 때 다시 본격적으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다. 악보 보는 법도 몰라 음을 외워서 연주한 그는 필리프 탕보라니와 레나 세레셰프스카야, 그리고 장 프랑수아 헤이세르를 차례로 사사하며 4년간

인 피아니스트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달달 위운 음악을 하는 것보다 실제로 자신이 하는 음악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즉흥적으로 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그가 좋아하는 피아니스트는 쾰리니 우스 몽크, 듀크 엘링턴, 에롤 가너, 오스카 피타순 등 재즈에 기반한 이들이다. 옆에 있던 그랜드 피아노로 단순한 음만 짚는 '안 좋은 예', 재즈처럼 여러 음이 번져나 '좋은 예'를 실연하기도 한 드바르그는 "음을 의미가 있는 자리에 놓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바흐에 대한 독창적인 해석을 담은 음반 '비호: 골드베르크 변주곡'으로 이름을 알린 캐나다의 피아니스트 글렌 굴드(1932~1982)가 그렇다고 했다. 드바르그는 자유로운 삶의 궤적을 그려온 굴드의 굴곡을 좇아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정해은 기자

## 창조 관광사업 공모전 3월 2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제6회 창조관광사업 공모전'이 3월23일까지 열린다. 예비창조관광사업 부문과 창조관광사업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예비창조관광사업 부문은 예비창업자와 창업 7년 이하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사업은 사업화 자금 2500만원과 맞춤형 컨설팅,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받는다. 창조관광사업 부문은 업무 경력에 관계없이 창의적인 관광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용·복합 관광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기업은 문체부 장관 명의의 확인증을 수여받으며, 관광개발진흥기금 운영자금 특별용자 지원과 투자 유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업체 관광 분야의 창조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5개 지역(강원·경북·전남·충남·제주)에 지역합당제를 실시, 별도로 중소기업기업을 선발한다. 지역합당제에 의해 선정된 기업은 각 창조경제혁신센터 사무공간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공하는 컨설팅 등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문체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 중으로 약 200억원 규모의 창조관광기업 육성 펀드를 조성해 창조관광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올해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업체 지역 맞춤형으로 특화된 중소기업기업을 집중 발굴·육성해 지역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전주'의 지움(ㅊ)과 '필름 페스티벌'의 피움(ㅍ) 사용

## 전주국제영화제 포스터 공개

### 지움과 피움에 영화축제 의미 함축

오는 4월에 열리는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의 공식포스터가 22일 전격 공개됐다. 이번 포스터는 '전주'의 대표 자음인 지움(ㅊ)과 '필름 페스티벌'의 대표 자음 피움(ㅍ)을 상징 기호로 사용해 영화제가 열리는 도시인 '전주', 영화와 관객이 만나는 '영화 축제'라는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올해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메인과 서브 포스터 2종으로 만들어졌다. 메인 포스터에는 전주의 대표 자음 'ㅊ'을 위 아래로 나란히 배치해 개회 도시를 강조했고, 서브 포스터는 필름 페스티벌의 대표 자음 'ㅍ'을 같은 방식으로 활용했다. 또 대표 색상인 주황색과 함께 매년 영화제의 정책 방향에 따라 변화를 주기로 한 보조 색상을 생동감과 젊음을 상징하는 파란색으로 선정했다. 전주국제영화제 관계자는 "올해 포스터에서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지난해 영화제 때 새로 설정한 페스티벌 아이덴티티와의 연계성 안에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이번 포스터에는 로고와 회화 개회 기간, 상징 기호만을 단순, 간결하게 사용해 전주국제영화제가 추구하는 의미를 함축했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합법적으로 콘텐츠를 관리하는 클린사이트 홍보영상

## 저작권 안전지대 '클린앱'에서 안심 다운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송순기) 저작권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는 모바일 앱을 이용한 불법복제물의 유통이 심각해짐에 따라 합법적으로 콘텐츠를 관리하고 서비스하는 모바일 앱을 '클린앱'으로 첫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보호센터는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전문 심사평가위원회의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불법복제물 없이 합법 콘텐츠를 유통하는 온라인사이트를 클린사이트로 지정해 왔다. 모바일앱에 대한 클린앱 지정은 오이북, 오이로망, 오이무림, 오이북전자도서관을 비롯하여 사계절출판사, 문피아, 몽키3, 북팔, 피너핀 등 총 9개 앱이 대상이다. 모바일앱의 신규 지정 이외에도 총 6개 온라인사이트가 클린사이트로 신규 지정되어 현재까지 영상(영화 방송)·음악·교육·전자책(출판, 만화), 뉴스, 웹툰 등 다양한 장르의 123개 온라인 및 모바일 앱 사이트가 클린사이트로 지정되었다. 지정된 사이트에서는 이용자들이 불법복제물에 대한 걱정 없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정해은 기자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slab.com/>    (2016년 2월 24일)

<p><b>▷쥐띠</b> 49년생: 문서를 주고받기에 좋은 운. 80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 72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 84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쉽게 해결 될 것이다.</p>	<p><b>▷소띠</b> 49년생: 문서에 결함이 들어왔으니 계약이나 투자를 하는 일에도 좋은 운이다. 61년생: 여성은 남성으로 인해 일이 성사되니 망설이지 말고 손을 내밀어라. 79년생: 글전문이 아니거나 문은 지나가는 것이다. 86년생: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오해가 풀릴 것이다.</p>	<p><b>▷호랑이띠</b> 50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이다. 62년생: 정신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는 운. 74년생: 손아랫사람에게 배움의 덕이 돌아오는 운. 86년생: 경쟁자로 인해 신경 쓸 일이 생기지만 서로에게 좋은 지극이 될 수 있으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p>	<p><b>▷토끼띠</b> 51년생: 정신적으로 우울하게 빠질 수 있다. 63년생: 글전문이 좋아지는 시기이나 편입을 사용하여 취득하면 후에 문제가 발생하니 주의하라. 75년생: 구설수와 시비가 따르는 운이다. 87년생: 글전가래는 불리하니 주의하고 손재수의 실수를 피하라.</p>
<p><b>▷용띠</b> 52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 64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니 근심이 해결될 것이다. 76년생: 오늘의 적이 곧 내일의 친구가 된다. 88년생: 뒷사람의 모진 말속에 도를 되는 일이 있으니 감정을 추스려라</p>	<p><b>▷뱀띠</b> 53년생: 지나친 욕심은 허튼 부르는 지름길이나 주의하라. 65년생: 다른 사람으로 인해 힘든 일이 생기는 운. 77년생: 의술을 하던 계획적인 자질이 필요운 운이다. 89년생: 머리가 맑아지는 운이나 복잡한 일을 하거나 두뇌를 많이 이용한 일을 하기에 좋은 운이다.</p>	<p><b>▷말띠</b> 54년생: 처음에는 화합하나 후반에는 어긋나니 함께 있는 시간이 길수록 불리하다. 66년생: 동기간으로 인해 마음 상할 일이 생기는 운. 78년생: 식욕이 따르는 운이나 과식은 금물이다. 90년생: 여성은 남성과의 다툼이 따르는 운.</p>	<p><b>▷양띠</b> 55년생: 일관성 있는 태도든 갖지 않으면 시비가 따르다. 67년생: 먼저 배움에 후회 이익이 따르는 운. 79년생: 문서를 주고받거나 학업에 관련된 일을 하기에 좋은 운이다. 91년생: 동생보다 이상의 도움이나 조언을 구하면 일을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p>
<p><b>▷원숭이띠</b> 56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68년생: 문서를 잡고자 하거나 계약상 산 때도 좋은 운. 80년생: 초반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포기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92년생: 현재 상황을 피하게 받아들이지 말라.</p>	<p><b>▷닭띠</b> 57년생: 손재수가 따르니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라. 69년생: 소홀했던 사물을 찾아가면 좋은 정보를 얻는다. 81년생: 이성을 주의하지 않으면 구설이 생기거나 회가 생기니 공과 사를 구별하고 거리를 두어라. 93년생: 지나친 욕심은 오히려 화를 부르는 운이니 주의하라.</p>	<p><b>▷개띠</b> 48년생: 동기간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상황이 발생한다. 59년생: 인덕은 버리지 말아야 하는 운. 70년생: 건강에 주의하라, 원렘도 되도록 삼가는 것이 좋겠다. 82년생: 상황이 변하여 불리거나 힘든 일이 생기니 미리 예방하라.</p>	<p><b>▷돼지띠</b> 47년생: 뜻이 맞는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운. 59년생: 계약하거나 좋은 문서를 얻을 수 있는 운. 71년생: 뜻하지 않게 이성으로 인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니 주의하라. 83년생: 적은 욕심은 이루어지나 큰 욕심은 허튼 무른다.</p>